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주의하라

성경 사사기 11:29-40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말로 앞서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우리의 말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생각해 볼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을 조심하고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려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말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하나님이지여(은혜의 찬양 451장)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와 나의 빛이요 여호와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와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2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찬송가 323장)

-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 아골 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 존귀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 읽기 사사기 11:29-40

- 이에 여호와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이십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뮌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독녀라
-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두 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 두 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 관습이 되어
-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본문 배경

사사기 11장은 이스라엘의 열한 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으로, 기생의 아들이라는 출신 배경 때문에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머물던 자였지만,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백성에 의해 다시 불려와 사사가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전쟁의 승리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맞이하려 나오는 자는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가증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레 18:21, 신 12:31) 결국 전쟁에서 이긴 입다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외동딸이 춤추며 마중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며 딸에게 자신의 맹세를 말하고, 딸은 두 달 동안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자신의 처지를 슬퍼한 뒤 돌아와 아버지에게 순종합니다. 성경은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삿 11:39)라고 기록하며, 그녀가 실제로 번제 제물로 죽임을 당했는지, 혹은 평생 혼자 살다가 여호와께 바쳐졌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문이 문맥상 실제 인신 제사의 비극적 결말을 암시한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입다의 신앙적 무지와 성급한 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서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했는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제사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며(시 51:16-17) 참된 순종은 겸손과 신중함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입다의 딸은 아버지의 잘못된 서원에도 순종함으로 희생되었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경솔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와 죄를 낳는지를 보여 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말이 약속이 되기에, 우리는 항상 겸손과 경외함으로 말해야 합니다.

말씀 적용

1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나 약속 중에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습관이 우리 가정에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세요.

말씀 관찰

1 입다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나요?(29-31절)

답 전쟁에서 승리하면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해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앞두고 입다는 여호와와 영에 감동되어 싸움에 나섰습니다.(29절)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신의 확신에 의존하여 서원합니다. “만일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내 집 문에서 나오는 무엇이든지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겠나이다.”(30-31절) 이는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와 함께 하셨지만, 입다는 불필요한 맹세로 스스로 비극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신앙은 말의 열심보다 마음의 신뢰입니다. 하나님께 신중하지 못한 말은 결국 자신과 가정을 아프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2 입다는 자신의 서원을 어떻게 이루었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34-40절)

답 서원대로 자기 딸을 번제물로 드렸고, 그 일로 큰 슬픔과 비극이 생겼습니다.

해설 전쟁에서 승리한 입다는 기쁨에 차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그의 외동 딸이었습니다.(34절) 입다는 옷을 찢으며 슬퍼했으나, 이미 한 말을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서원한 대로 행하였습니다.(39절) 입다의 잘못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 서원을 함부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제물로 받지 않으시며, 순종을 제사보다 기뻐하십니다.(삼상 15:22) 성도는 감정이나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신중히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입다의 이야기는

3-5 너는하나님앞에서

전도서 5장 2절

작곡 조미진

Bb(add9) F/A Gm7 Bb/F EbM7 F/Eb Dm7 Gm7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

5 Cm7 Eb/F Dm7 Gm7 Cm7 Eb/F Bb F/A Gm7

음으로 말을 내지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9 EbM7 C/E Eb/F F EbM7 F/Eb Dm7 Gm7

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할 것이라—

13 Cm7 Eb/F Bb(add9) Ab/Eb EbM7 F7 Bb(add9)

말을 적게할 것이라 전도서 오장이 절야 멘!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입술이 경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신중히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감정이나 순간의 열심보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과 함께 선하게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